

山移動說話의 研究

崔來沃*

1. 序論

山과 韓國人은 長久한 시간을 통하여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 과거 역사를 보거나 당장 현재를 보면, 나아가서 미래를 내다볼지라도 山의 存在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 山은 親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다. 生產供給處와 休息處로서 山은 親近하지만 때로는 恐怖와 敬畏의 대상도 된다. 山은 聖所空間이기도 하며 說話의 重要素材이기도 하다.

說話에 나타난 山의 性格과 意味는 무엇인가? 그 多義性을 들고 그중에서【移動說話型 하나를 들어서 고찰하려는 것이 本稿의 目的이다.

자료는 필자가 직접 채록한 口傳說話와 文獻에 의한 것으로 34話를 들었다. 山에 대한 다른 연구와 자료는 後考로 미루어야 하겠는데, 이 方면의 앞선 연구가 거의 없어서 用語와 概念은 필자가 命名 使用하는 것이 많다. 현재까지 수집한 자료가 量에 있어서 완벽하지 못한 점은 어쩔 수가 있으나, 일단 수집한 자료를 대상으로 話素에 따라 對比하여 그 相同과 相異를 밝히고 각 話素의 意味를 究明하고자 한다. 話素는 類話間에 變異가 생길 수 있는 六何原則에 해당하는 단어나 句節로서 說話의 重要要素이다.¹⁾

山에 대한 先學의 研究로는 古山名과 古傳說을 들어서 韓國古代山神의 性은 女神이라고 한 孫晉泰교수의 논문을 들 수 있다.²⁾ 山에 대하여는 特定 山과 韓國의 全般 山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研究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全州 永生大 教授 (國文學專攻)

1) 拙稿, 說話와 그 小說過程에 대한 構造的 分析(國文學研究 제7집, 서울대학원 國文學研究會 1968) p.13

2) 孫晉泰, 韓國古代山神의 性에 就하여(民俗學敎, 民學社, 1975, 再收錄引用)

2. 山의 多義性

우리 한국인이 山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데는 觀點과 學究에 따라 다를 것 이지만, 說話를 통하여 보면 크게 自然現象과 人文現象으로 나눌 수 있다. 필자가 이미 다른 洪水도 自然의 洪水냐? 人文의 洪水냐에 따라 나눌 바 있어서³⁾ 여기서도 山을 이 兩者로 나누고자 한다. 說話는 勿論 人文現象의 山을 대부분 소재로 하고 있다. 자연현상이란 큰 비가 와서 산사태가 났다면 가, 金礦이 發見되었다면 가, 동굴에 피난을 갔다면 가, 무슨 무슨 동물이 산다면 가, 산이 떠내려왔다는 浮來山 이야기가 해당한다. 洪水와 龍의 登天이 야기도 여기에 속한다.

다음 인문현상은 간단하지 아니하나 필자는 크게 歷史性과 風水地理性과 宗教性과 人格性으로 나누고자 한다.

本稿에서는 大局的인 山의 多義性을 導入部로 삼기에 詳論은 다음으로 미루고 대강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歷史性～◎建國神話(檀君, 昔脫解, 金首露王, 王建, 李成桂 等의 建國에 나타나는 山과 그 護國山神들)
- ◎王朝와 政權維持에 나타나는 山과 山神들.
- ② 風水地理性～◎山의 形과 穴에 따른 개인과 지방과 국가의 吉凶禱福
◎行舟形과 明堂運의 好不好
- ③ 宗教性～◎신앙의 대상으로서 山과 신앙장소로서의 山(儒, 佛, 仙, 과巫俗, 民間信仰, 현대의 기독교에서)
- ◎祈雨處
- ④ 人格性～山과 山神에게 人間性을 부여하는 경우로 山과 山神의 憲志와 男女性別, 山의 移動, 動物로 나타나는 산과 산신의 象徵, 斷穴의 悲劇 等

여기서 다루고자 한 것은 ④ 人格性 中의 “山의 移動”이다. 이것은 山移動譚이라 하여 張德順교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⁴⁾

G 怪奇譚 5. 道術 10) 山移動…○浮來山 ○山高 ○山開 ○山回

3) 拙稿, 韓國洪水說話에 對하여(韓國民俗學, 9號 民俗學會 1976) p.83

4) 張德順, 韓國說話文學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70) p.35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위의 山移動說話의 분류는 더욱 深化되고 細分될 것이다. 이것이 본고의 중요임무가 된다.

3. 山移動說話의 分類

그리면 어떤 이야기가 山移動說話인가를 들어보자.

- A. 發端～a 옛날에 b 어느곳에 있던 c 산이 d 서울에 가서 鎮山이 되려 e 걸어가고 있었다. (希望)
- B. 展開～ 그런데 이른 f 새벽에 물길러 나온 g 여자가 보고 h ‘어마 산이 걸어가네 !’라고 말한다(女子 妨害)
- C. 結末～그러자 산은 i 부정을 타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挫折)
- D. 結末～만일 j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그 산은 서울에가서 名山이 되었을 것이다(假想)
- E. 證示～지금도 그 k 증거가 남아 있다. (證示)

以上에 부호를 매긴 a～k까지 밀줄친 단어와 句節이 앞에서 말한 話素이며 本이야기는 構成上 4分되나니, A는 發端部, B는 展開部, C와 D는 結末部, E는 證示部이다.

A의 d 話素 “왜 산은 움직였는가?” “움직이는 데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 이유가 있다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다시 4로 나누어진다. 산이 서울이라는 希望과 目標를 가지고 걸어가는 移動型과, 다음은 산이 있는 그 고장(地域)이 서울이 되려고 산이 들거나 벌어지는 地域型이 있으며, 세째는 女子의 방해가 없는 대신 이미 다른 산이 서울 鎮山으로 先占하여서 실망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 失機型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山의 意志는 없이 自然現象으로 山이 移動한 것이나, 人間意志로 山(또는 岩 또는 寺刹)이 移動한 外入型이 있다. 여기서 마지막 外入型은 山의 人格의 意志와 그 意味가 없다고 보아서 提示만 하였고 論述은 제외하였다.

이제 수집한 자료를 들어서 山의 移動事例를 分類하고 命名하고자 한다. 理想的인 자료는 全國에서 골고루 수집한 것이겠으나 조사능력에 따라 南韓으로 한정되었고 그것도 주로 필자의 고향(全北 南原)을 중심으로 하는 결

과가 되었다.

ㄱ. 移動型(서울로 가기)

- ① 山去(A 산이 서울로 걸어 간다~B 여자가 말한다~C 그 자리에 선다)

자료 1. 2. ○ 全北 鎮安郡 馬耳山 <채록> <전북민속조사보고>⁶⁾

자료 3. ○ 全北 南原郡 雲峰面 三山의 求禮山 <채록>⁸⁾

자료 4. ○ 全北 南原郡 實節面 桃陽里 烏龍山 <채록>⁷⁾

자료 5. ○ 忠南 公州郡 長岐面 新官里 箕山 <지명조사첩>⁹⁾

자료 19. ○ 全北南原郡松洞面 松上里 원통산 <지명조사첩>

- ② 引山去(A 힘센 장사가 산을 끌고 가거나(引山), 어깨에 메고(負山) 서울로 간다~B 여자가 말한다~C 그 자리에 선다)

자료 6. ○ 全北 淳昌郡 東溪面 理鋼里 땅오리산(평이산)¹⁰⁾

자료 7. ○ 慶南 固城郡 永吾面 吾西里 山~負山 <지명조사첩>

- ③ 山高(A 산이 자란다. 그래서 빨리 서울에 가려고 한다~B 여자가 말한다~C 그만 멈춘다)

자료 8~12 ○ 全北 鎮安 馬耳山 <채록 2편>¹⁰⁾ <전북민속조사보고 2편> <진안의 일>¹¹⁾

ㄴ. 地域型(서울되기)

- ④ 山回(A 그 지역이 서울이 되려고 산이 돋나~B 여자가 말한다~C 그만 선다)

자료 13. ○ 全北 南原郡 雲峰面 檍布里 古南山 <채록>¹²⁾

자료 14. ○ 全北 南原郡 雲峰面 北川里 茱萸山(城山) <채록>¹³⁾

5)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 第二冊全北篇 1971. 說話篇 p.584 이 설화편은 任哲宰敎수가 담당하였다.

6) ① 朴元鏞(男 65. 前雲峰面長)씨가 1965.1.24 낮 전북 남원군 운봉면 서천리 집에서 구술.

② 이기준(男 65. 농업)씨가 1978.7.14. 오전 11시50 분 龍山里 집에서 구술, 어려서 이 고장 노인에게서 들었다고 한다.

7) 安江洙(男 28. 全州工專교수)씨가 1978.3.21 오전 11시 교수실에서 고향 전설이라고 구술. 고향노인에게서 어려서부터 들은 것이라 한다.

8) 全國地名調查綱.(건설부 국립지리원소장)

9) 金泰燮(남 18. 雲峰畜產高 2年)군이 1978.7.14 오후 7시 同校庭에서 고향이 야기라 하며 구술, 고향에서 전해온 이야기를 들은 것이라 한다.

10) 자료 8. 吳明善(남 49. 전북 임실군 둔남면 오수리 거주)씨가 1978.7.15 오후 1시 同 오수리 義犬碑閣 앞에서 구술. 18살 때 오수에서 馬耳山에서 이사온 친구에게 들었다고 한다. 자료 9. 韓炳燁(남 41 남원읍 천거리 거주, 면공부원) 씨가 1978.7.12 오후 7시 55분 오수지나면서 남원행 직행버스내에서 구술. 3년 전 마이산 가서 주민에게서 들었다고 한다.

11) 진안의 일(진안군 교육청 발간 1971.) p.131.

12) 월자의 기억. 8살 경 누나가 처음들려 준 것이다.

13) 백우형(남 20. 全州工專 기계설계과 1년) 군이 1978. 5. 26 조사보고 한 것. 며칠 전 병무청 소집할 때 용산리 청년이 구술한 것이라 한다.

⑤ 山開(A 그 지역이 서울이 되려고 두 산이 벌어진다 B 여자가 말한다~C 그만 선다)

자료 15. ○ 全北 淳昌郡 東溪面 채계산 <채록>¹⁴⁾

⑥ 山接(A 그 지역이 서울이 되려고 두 산이 만나려고 걸어간다. 뻗어간다~B 여자가 말한다~C 그 자리에 선다)

자료 16. ○ 全北 南原郡 雲峰面 龍山里 용모름산 <채록>¹⁵⁾

자료 17. ○ 全北 鎮安郡 龍譚面 舊邑 南쪽 쇠솟뿌리산 <첨북민속조사보고>

자료 18. ○ 全北 淳昌郡 淳昌邑 造山 <채록>¹⁶⁾

ㄷ. 失機型(名山의 기회를 놓치다)

⑦ 山止(A 서울이 되려고 걸어간다~B 이미 다른 산이 鎭山으로 와 있었다. 서울이 完成되었다~C 그 자리에 선다, 돌아선다)

자료 19. ○ 全北 南原郡 松洞面 松上里원통산¹⁷⁾

자료 20. ○ 서울近郊 佛岩山 <채록>¹⁸⁾

자료 21. ○ 京畿道 廣州郡 西部面 下司倉里 客山 <지명조사철>

⑧ 山飛(A 산이 날아간다~B 이미 完成되었다. ~C 그만 떨어진다)

자료 22. ○ 江原道 雪嶽山 을산바위 <채록>¹⁹⁾

⑨ 岩止(A 萬里長城이 되려고 바위가 걸어간다. 날라간다, 옮긴다. ~B 이미 完成되었다~C 그만 그 자리에 선다)

자료 23. ○ 慶北 慶山郡 押梁面 峴山洞 선돌배기 <지명조사철>

자료 24. ○ 慶北 青道郡 豊角面 黑石洞 28개 바위. <지명조사철>

자료 25. ○ 慶北 青松郡 府南面 大前國民學校근처 들고개 <嶺南의 傳說>²⁰⁾

자료 26. ○ 慶北 月城郡 江東面 旺信里 賽岩 <지명조사철>

ㄹ. 外入型(의지에서 들어왔다)

자료 27. ○ 慶北 蔚珍郡 近南面 守山里 飛來洞 孤獨峰

원래 太白山脈의 支脈이었던 바 바람에 날리어 孤獨峰이 되었다고 한다. <지명조사철>

자료 28. ○ 京畿 榕平 떠드렁山

한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山이다. <채록>²¹⁾

자료 29. ○ 江原道 江陵市 松亭洞 竹島峰

14) 安光永(남 25. 농업)군이 1965. 1월 남원군 운봉면 동천리 집에서 구술, 순창 누나집에 가서 들은것이라 한다.

15) 이기충, 註 6, 자료 3 참조.

16) 任哲宰교수가 1965. 6. 24 서울 안암동 댁에서 제공

17) 韓炳燁, 註 10, 자료 9 참조.

18) 任哲宰, 註 16, 자료 18 참조.

19) 원자가 1963. 8. 설악산에 갔을 때 현지 주민에게서 처음 들었다.

20) 柳增善, 嶺南의 傳說(營馨出版社 1971) 119話

21) 徐大錫 교수(梨大國文科)가 1978. 6. 25 제공. 1968년에도 들려준 바 있다.

먼옛날 전라도 전주에서 떠내려왔다.〈지명조사집〉

자료 30. ○ 江原道 春城郡 西面 錦山里 浮來山(孤山)

이 산이 金城郡에서 떠내려왔다. 山稅받으러 온 것을 兒智로 물리쳤다
〈전국지명총람〉²²⁾

자료 31. ○ 全北群山市 龜岩洞 外山

산이 外地에서 부락안으로 들어왔다. 〈지명조사집〉

자료 32. ○ 慶北 慶山郡 山城

진수가 멀리서 投石築城하였다〈채록〉²³⁾

자료 33. ○ 方丈飛來

고구려 말 보장왕 원년(650년) 普德和尚이 신통력을 써서 平南 龍岡郡에 있던 盤龍寺의 方丈을 全北 完山州 孤大山으로 날려보냈다.〈三國遺事卷三〉

자료 34. ○ 全北 沃溝郡 臨陂 公州山

公州로부터 浮來한 山이라한다. 〈東國輿地勝覽〉

자료 35. ○ 慶北 盈德郡 盈德面 南山里 入來山

산이 걸어서 부락입구에 와 위치하였다. 〈지명조사집〉

위에서 분류한 山의 移動을 그. 移動型과 ㄴ. 地域型과 ㄷ. 失機型과 ㄹ.
外入型으로 나누어서 그. ㄴ. ㄷ만 山의 意志가 있다는 점에서 대상으로 고찰하고자 할 때, 이것은 A希望~B妨害~C挫折~D假想으로 보면 그 A, B, C, D의 관계는 線으로 처리할 수 있다.

山은 서울에 가서 출세하고자 한다. 이것은 外地에 있는 微賤한 無名山의 강력한 移動意志인 것이다. 이러한 移動이라는 運動은 無人格의 靜的인 山을 動的인 人格의 山으로 變化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고, 希望意志가 그 動因이다. 여기에는 空間의 移動과 함께 일정한 시간내에 서울에 도착해야하는 時間의 限界가 조건으로 있다. 빨리 서울을 가려면 쉬지 않고 直線으로 가야하므로 그 線移動은 直線이 되고 時間中心이 된다. 가는 길에 산은 어느 누구의 방해를 받아서도 안 되고 사람의 눈에 피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며 山의 移動이라는 天機가 폭로되는 神秘性의 弱化인 것이다. 결국 산의 이동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방해물은 인간이며 그 중에서도 女子인 것이다. 여자는 큰 꿈을 이해 못 하는 憂慮한 保守者로서 山의 神秘性에 비하면 俗物인 것인지라 극히 相剋的인 자세가 나타난 것이다. 낮에

22) 한글학회, 전국지명총람(강원도편)

23) 金烈圭 교수(西江大學文科)가 1978. 6. 25. 제공.

움직이는 山은 女子보다 허약하다. 이것이 산의 취약점인 것이다. 원래 靜的인 山은 女子와 無關하지만, 動的인 山은 相剋이 된다는 점에서 山의 移動은 男性的인 移動을 상징한다.

ㄱ. 移動型이 直線으로 時間中心인데에 비하여 ㄴ. 地域型은 平面으로 空間中心이다. 山回와 山開는 현재보다 넓게 서울터를 넓히면서 鎮山의 方向을 잡는 것이고, 山接 또한 두 산이 만남으로써 두 산 사이가 서울터라는 공간을 형성한다. 그리하여 “빨리 서울가려는” 移動型과는 달리 “넓게 서울터 잡기”라는 地域型이 된다.

다시 말하지만 서울의 의미는 出世와 完成이다. 위에서 본 두가지 型을 통하여 서울이란 外部(女子)의 방해가 없는 時間과 空間의 完全한一致를 의미한다. 가만히 있는 本來의 靜的인 山은 數學的으로는 하나의 點이다. 이 點에 “서울”이라는 動機誘發이 생김으로써 힘이 가해지고 비로소 動的인 산이 되며, 本來 있던 곳을 出發點으로 하여 서울을 到着點으로 하려는 直線(線分)이 그어지게 된다. 두 점이 만나는 것이 移動하는 山이 소원하는 서울성 취인 것이다. 山의 소원은 “만남”으로서 이루어진다. 移動型은 이미 있는 서울에 終着하는 만남이 있으면 되고, 地域型은 거기까지만 서울터가 되리라는 上限點을 만나면 된다. 時·空一致의 完全한 만남이 서울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 뜻밖에 人間인 女子가 妨害者로 갑자기 등장하여 虛를 치름으로써 서울좌절을 일으키기에 山으로서는 不意의 奇襲으로 좌절하는 悲劇인 것이다. 그 女子가 무삼코 본 대로 “어마, 산이 걸어가네!”하는 말 한마디가 서울을 목표로 하는 山의 위대한 이동을 一擊에 中止시켜 버리는 것이다. 女子가 그렇게 위대하며 山은 그렇게 허약하다는 말인가? 山의 移動을 說話니까 그렇겠지 하며 인정하던 우리의 常識이 여기에 이르러서는 혼란에 빠져버리게 된다. 이처럼 여자의 하찮은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힘이 될 수 있는가? 話者는 不淨해서 그런다고 한다. 여기서 禁忌(TABU)과 괴와 女性의 魔力を 다음 장에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說話에서의 女子는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며, 善하기도하고 惡하기도 하며, 역사의 진행을 추진시키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女子의 強弱과 善惡共有의 兩面性은 太初에서 지금까지 時代性格을 구분지을 수 없는 全時代의 說話의 通性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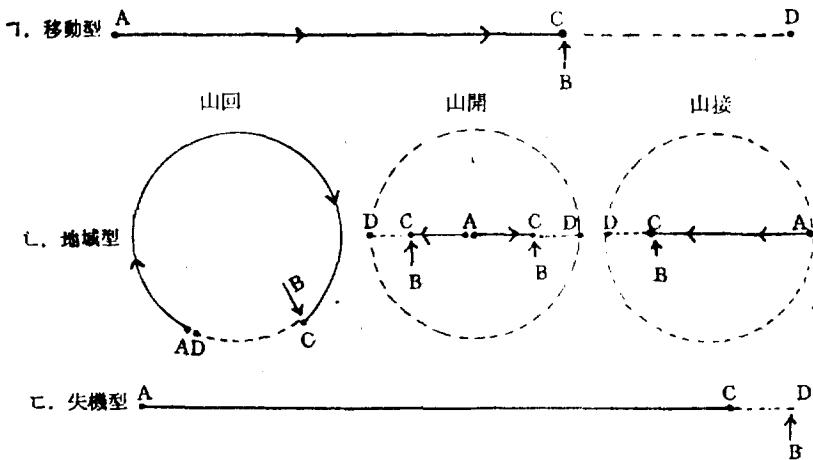
이다. 위에서 말한 型을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주의 A=地方의 出發地~회망~발단

B={途中 여자의 말}~방해~전개
(他山의 先占)

C=途中 定着地~좌절~결말

D=서울 終着地~가상~결말



1. 移動型은 直線으로 時間中心이며 B여자방해가 있고 2. 地域型은 두 점이 만난 사이의 圓으로 空間中心이며 마찬가지로 B여자방해가 있다. 3. 失機型은 直線으로 순전히 時間中心이며 B 여자방해가 없는 대신 다른 산의 先占이 좌절요인이 된다.

4. 分析과 意味

지금부터는 話素와 그 결합을 分析하면서 意味를 살펴보고자 한다.

a. 언제

山은 과연 언제 움직였을까?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山移動은, 說話에서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사람처럼 자유로이 “서울행”과 “서울되기”를 目標로 全國에서 움직이는 것이니, 이것은 서울이 정말로 權世와 出世의 中央地이므로 누구나 동경하는 곳이라는 心理的인 意味를 깔고 있는 만큼, 中央集權王朝가 完成된 以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太初의 이야기가 아니

라 話衆이 “서울가서 출세했으면”하는 소원을 강렬히 가진 王朝安定期의 產物이라고 하겠다. 이 설화는 山神의 이야기가 아니고 산이 사람같이 행동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b. 본래 어디 있던(出發地) c산이 d 어디로 (終着地)에 가는가?

b출발지와 d종착지가 밝혀진 것은 다음과 같다.

자료 1. 한라산의 小山——서울

자료 3. 求禮——靈峰崔進士네 主山

자료 9. 鎮安——서울

자료 18. 海南——南原(蛟龍山城)

자료 19. 金剛山의 小山——서울 南山

자료 21. 蔚山의 無名바위——金剛山

전체 24자료중에서 6만 밝혀진 위 자료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遠距離에 떨어진 無名山이 용케도 出世할 수있는 目標인 서울行의 정보를 듣고 과감하게 출발하는 용기이다. 출발지가 밝혀지지 않은 나머지 자료도 이상 6자료를 보면 마찬가지라고 類推할 수 있다. 그 意欲에 반하여 移動하는 山의 身分이 낫기에 가던 도중에 좌절을 맛보게 된다.

다음 d어디로 왜 가는가를 살펴보자.

d. 서울로 가기 6(한양길 자료 12, 서울名山 자료 1, 서울南山 자료 4, 9, 19, 20)

d1 서울터 되기 6(자료 6, 7, 13, 14, 15, 16)

d2 만리장성으로 가기 3(자료 23, 24, 25, 26)

d3 名山 되기 2(자료 10, 11)

d4 南原山城 (자료 19)

d5 금강산 되기(자료 22)

d6 부자집 主山 되기(자료 23)

d7 암산과 수산 만나기(性交 상징) (자료 17)

d8 그 근처가 바다 되기(자료 8)

d9 不明(자료 2, 자료 5)

以上을 보면 再言하지만 山의 出世指向이 的實히 나타난다. d와 d1의 12개 자료는 명확하게 “서울”이다. d5 이름없는 울산바위가 금강산 일만이천봉에 참가하려는 것도 서울행과 같은 출세목표이며, d4 南原山城도 마찬가지다. 사실 남원은 新羅時代의 小京 南原이었으며, 春香傳 等으로 湖南의 文化的

인 中心地라는 궁지가 대단한 곳이다. 진안마이산과 남원교룡산이 山高를 경쟁했을 때(d8, 자료 8), 그 두 산 사이가 바다가 되리고 한 것도, 세상은 다 물에 잠겨도 두 산은 섬(島)으로서 살아남는다는 자신감이 차 있기 때문이다. 그때 南原山城은 세상을 정복한 王이 될 것이다. 자료 8을 보면 馬耳山은 南原山城보다 지위가 낮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름없고 쓸모없는 無名의 바위는 d3 中國의 萬里長城에 참가하는 것이 出世이다. 中國指向의 둘이 領南에만 4곳이 있는 理由는 현재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우나 新羅統一期에 城과 긴밀한 文化와 政治交流를 가졌던 것에 기인한 것 같다. d6은 그 규모가 축소된 것이며, d3에서 서술과 관련없다면 자기 스스로 높아지면 名山이 될 것이니 이것도 출세를 위한 것이다. d7은 흥미롭다. 쇠꽃뿌리山이라는 男根山은 龍岡山이라는 女根山을 向하여 뻗어간다. 앞에서 든 것은 權力과 기기에 따른 富貴가 산의 목표였는데, 이것은 性의 탄생이다. 富·貴·色은 인간의 三大慾望이라 하는데, 이 d7, 자료 17은 그중에서 色을 딱하여 男性의 欲求를 채우려 한다.

男山이 女山을 찾아간다는 d7을 통하여 서술을 찾아 가서 출세하려는 山이 결국 男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男性의 出世指向이다. 결국 山의 移動을 인간으로 보면 면 지방에 있는 신분낮은 平民 男子가 서울로 가서 출세하여 富·貴·色을 얻으려는 강한 成就動機를 갖고 行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f. 어떤 g여자가 h무슨말로 방해하였는가?

그 移動型과 地域型은 전부 g여자가 등장한다.例外가 없다. 그리고 산이 움직인다는 사실은 솔직하게 말해 버린다. 이 것도例外가 없다. 그러면 왜 하필 男子는 아니고 女子 뿐이라는 말인가? 어떤 여자라는 말인가?

f 새벽에 일찍 물길러온 여자 10(애기 업은 여자인 자료 9 포함)

f1 넷가에서 빨래 하던 여자 6(자료 16, 5, 13, 14, 그리고 여기엔 여자자료 3)

f2 더 크기 쉽다는 암馬耳山(자료 11)

f와 f1은 다 여성의 합리적인 외출을 나타내는데 f는 새벽외출이며, f1은 그 보다 늦게 외출하는 시간상의 차이이지만 다 이른 시간이다. 이른 시간으로 말하면 동네 우물이나 깨끗한 넛물을 食水로 길러나온 f가 더 타당하므로 17

재료중 10이나 된다. f2는 방해를 놓은 물길던 여성이 탈락된 것이라고 보는데, 馬耳山의 경우는 男山과 女山이 서로 다를 때 女山이 방해를 하여서 실패하므로 물길는 女子까지 등장하면 女子의 방해가 두 번 나온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자 하나가 생략된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얘기를 업은 여자와 얘기를 밴 여자가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여자가 방해라는 첫째 이유는 男性中心으로서 女性賤視觀念(男尊女卑思想)에 기인한 것이다. 옛날에는 이른 세벽 여자가外出하는 것은 禁忌였으며 지금도 그러한 직업이 많다.²⁴⁾ 이것은 女性의 閉鎖性이다. 또한 女性은 비밀을 지킬 수 없고 慎重하지 못하며 包容力이 없다는 女性卑下가 들어있다. 소견이 좁고 옹졸한 여자에게 山移動이라는 天機가 드러난다는 것은 곧 죽음이며 大局的인 雄略을 말하는 것도 必敗라는 관념이 들어 있다. 女性은 利己의이고 保守의이며, 비록 부친이나 남편이나 자식이라 하여도 一身에 害가 오면 배반한다는 점을 설화에서는 많이 담고 있다²⁵⁾ 이로써 보면 男性의 出世는 女性 관리부터 하여야 된다는 先人の 관념이 철저하다고 하겠다.

두째이유는 그 여자가 “남의 여자”라는 것이다. 출세하려는 山은 의욕이 강하고 그러한 男性도 폐기만만한 젊은 青年이다. 여기에 反하여 멀리서 山의 移動을 보는 女子는 거리로도 멀어서 남이지마는 아기를 배거나 업고 있었다는 점에서 아무런 협조를 할 수 없는 “남의 아내된 젊은 여자며 해로운 여자”인 것이다. 龍이 昇天하는 순간 여자가 보면 그 용은 바로 떨어져서 죽는다²⁶⁾는 설화도 같은 의미이다.

忠南 大德郡 杷城面 山直里의 龍胎里

380년전 용이 등천할 때 胎中에 있던 어떤 夫人이 보아서 등천을 못 하였다는

24) 수험생, 상인, 운전사, 안데나 수리공 등등은 세벽일찍 여자 만나는 것을 大忌한다.

25) 우리나라에 廣布된 說話を 들면 다음과 같다.

① 부친배반~친정아버지 묘소에 물을 뺏고 썩은 달걀을 넣어서 명당을 빼앗는다.

② 남편배반~개를 구하려 다닌 호랑이가 된 남편의 주술책을 불태운다(拙稿, 韓國孝行說話의 性格研究~孝子호랑이 說話を 中心으로~(韓國民俗學 10, 民俗學會 1977. 12.) 참조)

③ 자식배반~아들아기 장사가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렸는데 역적이 된다고 죽었다. 우물명당에 남편시신이 든 것을 洞民에게 폭로 하였다.

전선로 용대리라고 한다.〈지명조사철〉

젊은 남자가 시술로 과거를 보는 길에 젊은 여자가 손가락질을 하면 과거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다. 이것을 보면 산의 이동과 용의 등천과 젊은 남자의 과거 보기는 전부 출세지향인데 다 여자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 여성의 방해 능력은 山과 용까지 포함하여 대상을 가리지 아니하는데 이것은 산과 용이 남성을 상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애기를 뱉 것은 절대로 가까이 내것으로 만들 수 없으니, 남의 여자는 애당초 멀리하는 것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이므로, 순수한 출세를 목표로 하는 젊은 남자는 다른 여성을 극히 조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협조받을 수 없는 여자는 꿈을 가진 남자에게는 적이다.

세째 이유는 女性은, 특히 胎兒를 가진 여자는 生成力を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地氣를 吸水한다는 점이다. 大人을 낳으려면 嫪婦가 그 근처의 山川精氣를 흡수하기에 산의 나무가 말라죽고 냇물이 마른다고 한다. 李朝 燕山君때 柳子光이 태어날 때 全北 南原邑 高竹里에 있는 豺(요)川水가 말라버리고 옆에 있던 대가 말라서 지금도 누른대(枯竹里→高竹里)라는 마을이 있고 누른대 천이라는 냇물이 있다. 앞에서 例示한 “龍胎里”와 註 26의 “九龍里”에 나오는 嫪婦가 龍을 떨어뜨리는 魔力은 바로 柳子光 出生時의 “누른 대”에서 解答을 찾을 수 있으니 이것이 移動하는 山을 멈추게 하는 여성인 가진 偉大한 山川精氣의 吸收력이다. 이처럼 女性은 龍과 山같은 男性的 인 힘을 흡수하는 魔力이 있다. 嫪婦는 더욱 그러하다.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어머니로서의 여성은 이러한 무서운 힘이 있다는 점이 女性卑下思想과 均衡을 이루어서 强과 弱을 조화시켜 내려온 우리 역사와 意識이다.

i. 왜 山은 주저 않았는가?

이것에 대하여 話者들은 天機가 暴露되는 (자료 1) 不淨을 타서(자료 9, 자료 3) 산이 멈춘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禁忌(TABU)중의 “보이지마라

26) 다른 재료를 들겠다.

忠淸青陽郡 赤谷面九龍里

연대는 미상이나 九龍淵 용못에서 용 9마리가 승천하다가 嫪婦가 바라본고
로 不淨하다 하며 1마리는 승천있었으나 8마리는 승천하지 못하였다는 전설
이 있다. 〈지명조사철〉

showing tabu”의 파괴이다. 여자로 보면 “보지마라 looking tabu”가 되겠지만 누가 禁忌破壞로 懲罰을 받는가를 보면, 여자가 아니라 山이므로 “보이지마라”에 걸린 것이다.

이러한 禁忌는 事前 警告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다. 禁忌를 미리 定하는 자는 神과 같은 높은 者이고 그것을 듣지만 반드시 파괴하는 자는 人間이다. 그리고 징벌이 따른다.²⁷⁾ 그런데 사전 경고가 없는 경우는 인간이 잘 알아서 지켜야 되며 禁忌를 파괴하면 죽음에 해당한다는 默示가 깔린다. 이 山移動說話는 사전경고가 없으므로 自己判斷으로 禁忌嚴守가 要求되는 점에서, 山을 移動하도록 시키는 上位者 神이 없는 점에서 앞에서 말한 대로 山神과 無關한 人間의 이야기이며, 人間의이기 때문에 이 禁忌破壞는 必然의이다. 禁忌는 人間의 完全性이나 不完全性이나를 가름하는 試驗臺이다. 이 설화의 山은 女子에게 移動이 들켜서 서울행의 꿈은 좌절되는 바, 바로 그 약점이 인간적인 약점인 것이다. 그러므로 山의 挫折은 그 說話を 享有한 話衆들의 挫折을 投影한 것이다. 話衆은 平民이다. 이름 없는 산이 서울 南山(금강산도 마찬가지다)같이 높고 귀하게 출세하려는 봄 부림과 노력이, 약한 여자하나 때문에 禁忌로 인하여 좌절되었다는 것은, 바로平民들은 아무리 上向出世하려고 해도 그 결과는 좌절밖에 없다는 뜻이다. 본래 微賤한 弱者가 큰 꿈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의식의 발로이다.

날개 달린 아기장사가 자기 어머니한테 눌려 죽거나, 李如松이나 日本人이 山의 穴脹을 치른 결과 그 산이 산 사람같이 피눈물을 내며 울었으며, 그리하여 그 고장에서 훌륭한 人物이 나지 않는다는 전국 방방곡곡의 그 술한 이야기는 바로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平民의 좌절인 것이다. 나아가서 外國人의 斷穴은 중국과 일본에 대한 弱小國으로서 우리나라의 좌절인 것이다. 그런데 加害者에게 反抗과 복수를 안 하고 슬픔으로 甘受하는 것이 이상하다. 山은 왜 멈추게 하는 여자에게 저항을 하지 아니할까? 말한 여자가 죽었다는 그런 說話는 없다. 그렇다면 平民은 꿈 挫折을 運命으로 돌리고 저항하

27) 拙稿, 前掲(註 1)書 p.94

TABU 항목별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TABU를 주는자 2. 받는자, 3. 관계, 4. 상황, 5. 내용 6준 이유. 7. 방법
8. 시간 9. 파괴이유 10. 결과

지 아니하는 것으로 決論을 지울 것인가?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자 말라 는 체념론일까?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는 것이 本 說話의 깊은 의미이다

j.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이것은 假想이다. d의 반복이 되는데, d는 希望 話素이지만 j는 이미 山 이 좌절을 당한 후에 話衆이 가장하는 안타까운 希望인 것이다. 이제 그 山 의 탄식과 안타까움은 산을 보는 住民에게까지 확대되었고 그 폭은 移動型 보다 地域型이 더 심하다. 移動型은 山, 자기만 출세하는 것이므로 直線으로 나타나는 單數希望인데 비하여, 地域型은 그 地域 사람이 서울사람이 될 뻔하였다는 점에서 山과 住民이 同時에 출세한다는 圓으로 그려지는 複數希望인 것이다. 서울로 가기(移動型 失機型)나 서울터 되기(地域型)은 다 失敗 하였기에 挫折이라는 말을 필자는 썼지만 이것은 話衆의 無力이나 諦念과 같은 말은 아니다. 諦念은 해당초 없는 것이다. 그것은 自然의 山이며 靜과 零의 存在이다. 希望도 努力도 없는 것이다. 비록 失敗하였지만 이 설화의 ㅋ은 人格을 가지고, 意志를 가지고, 希望을 가지고 目標의 半以上은 前進하고 成功하여 갔던 것이니 半成功이라고 할만하다. 주저앉았지만(挫折) 零은 아니며, 만약 여자 망해만 없었더라면 하는再次 希望을 여전히 담고 있다. 다시금 失敗만 하지 않는다면 ——一次에 이어서 二次를 試圖한다면 ——하는 운을 항상 담고 있다, 未完成의 아쉬움은 언젠가 完成한다는 期待로 전환된다. 無名 地方이 서울터가 되고, 無名 小山이 서울 鎮山이 되는 것은 일단 협력한 신분상의 차이로 인하여 挫折이 있었으나, 그 試圖 自體와 試行錯誤에서 얻은 教訓을 살려서 完成하려는 期待意慾은 높이 評價해야 한다. k지금도 그 증거가 남아 있다는 證示가 바로 挫折이 아닌 期待라는 것을 응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智異山中의 小邑 全北 南原 雲峰은 4자료가 있는 筆者の 고향인데 “이 작은 고을이 서울이 될 뻔하였다”는 驚異와 期待를 이어서부터 필자는 가졌던 것이다. 本 說話는 教訓과 希望을 不斷히 話衆에게 發散하는 것이므로 挫折로 無化시키거나 “恨”에 주저 앉은 비극의 산이동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5. 結論

說話에 나타난 山의 性格과 意味는 무엇인가? 그 山의 多樣性中에서 山

移動說話를 들어서 分析하여 意味를 밝혀보려 하였다. 口傳과 文獻을 통하여 자료 35話를 話素로 分析하고 類型을 分類하고 概念을 設定, 命名하였다.

山說話는 自然現象을 다룬 것과 人文現象을 다룬 것으로 兩分되며, 人文現象은 다시 歷史性, 風水地理性, 宗教性과 人格性으로 나눈다. 山의 移動說話는 人格性에 속한다.

산이 서울로 걸어가는 것을 여자가 보고 말하여서 주저앉았다는 移動型에는 山去, 引山去, 山高가 있으며, 산이 돌아서 서울터가 되려는 것을 여자가 보고 말하여서 挫折된 地域型에는 山回, 山開, 山接이 있으며, 산이 서울을 가보니 이미 다른 산이 먼저 도착하였기에 주저앉았다는 失機型에는 山止, 山飛, 岩止가 있으며, 外地에서 山이 들어왔다는 外入型은 山來, 山浮來, 山飛來가 있는데, 外入型은 山의 人格的 意志가 적은 型 이므로 論外로 하여 3型 26話를 대상으로 希望(발단)～妨害(전개)～挫折(결과)～假想(결과)～證示構成으로 大分하고 다시 11話素로 小分하였다.

移動型은 直線으로 時間中心(빨리)이며, 地域型은 圓形으로 空間中心(넓게)이다. 山의 移動은 時空이一致하는 두 地點(山)의 만남이 완성인데, 女子가 뜻밖에 虛를 찌르며 妨害者로 등장하여서 失敗로 끝난다. 失機型에는 女性 대신에 先占한 山이 등장한다. 이 설화는 中央集權王朝가 들어서서 서울이 出世意味로 통하는 때의 產物로서, 微賤한 身分이 出世指向하려는 成就動機가 作用한 것인데, 이것은 젊은 男子가 富·貴·色을 얻으려는 慾望을 상징한 것이다.

여자가 물긷거나 빨래하는 것은 合理的인 이른아침 女性外出方法이며, 女子의 의미는 女性賤視에 기인한 保守·利己·옹졸이다. 다음 의미는 애기를 가진 남의 여자이므로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相剋이며, 세째 의미는 애기를 가질 수 있는 女性的 강력한 男性的인 山川精氣의 吸收力이다. 여기서 女子의 구실을 고찰할 때 女性管理는 出世의 成敗를 決定한다고 先인이 보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사전에 경고가 없던 “보이지마라”禁忌가 파괴되었다는데서 이 또한 人間의 不完全性을 뜻하며 바로 平民의 挫折을 投影한 것이다. 그러나 이 좌절은 諦念과 無를 뜻한 것이 아니라 半成功의 希望成就와 試行錯誤의 敎訓을 통하여 항상 期待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교훈적이다.

山이 움직이는 것은 그러한 話衆의 意識의 表現이다. 山神 性格을 차후에 살펴보면 山의 性格을 고찰하는데에 더욱 効果的일 것이다.

부록 자료 3편

ㄱ. 移動型 山去 例話

자료 4.

옛날에 남원군 보절면 괴양리 계룡산이 새벽에 서울로 걸어 갔답니다. 서울될 때 南山이 될라고 가는데 새벽에 물길러 나왔던 애기벤 여자가 보고 방정맞게, “아, 산이 걸어간다!”고 한바람에 그만 계룡산은 그 자리에 서버렸고 서울로 못 갔다는 이야기가 있읍니다. <安江洙(남 28. 全州工專교수)씨가 구술>

ㄴ. 地域型 山接 例話

자료 16.

지금도 우리 용산이에 용모름산이라고 요 앞에 있어. 운모름산이라고 있는데 요 산이 걸어가지고, 하여간 저——잿메산 끄더리 (城山 雲峰 北川里에 있는 鎮山)에가 딱 맞쳤으면 여기가 시골이 아니여, 시골이 아니고 여기가 서울터가 됐을 거라고 그래. 용모름 산이 잿메산에 이어지면… 냐나 그 산도 앞엣내에서 빨래하다가 “저 산이 끄덕 끄덕 걸어내려온다!”고 한개(하니까), 거기서 딱 그만 거시기 해각고(멈춰가지고), 여자가 그랬지. 여자란 것이 언제든지, 그런개 내 부모고 내성제 (兄弟)간이고 그러지마는, 아, 속담에 말이 없어? 아들네도 넘(남)의 식구라고 하거든. 즈그부모(自己父母)지마는 넌의 식구라고 혀. 그러면 어떻게 채쳐놓고 한단 말이여. 이기춘(남 65. 농업)씨가구술.

ㄷ. 失機型 山止 例話

자료 19.

전북 남원군 근방에 원통산이, 원통봉이라고 있어. 그것도 아까(馬耳山)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원통해서 못가서 꽉주저앉아서 원통해서 원통산이라고, 걸어왔다고 한데 원래 해남 어딘가 있다가 그게 뭐 여기(南原) 蛟龍山이 될라고 걸어왔다고. 그러다가 땅산이 먼여(먼저) 들어와 버리난가 꽉 주저 앉아서 원통해서 원통산이 되었다—— 그러지요. 海南서 남원 교룡산이 될라고 오다가 많이 걸어와서 쪼끔(조금) 사이에 못 돼서 그래서 원통해서 원통산이라고 그래. 내가 그전에, 원통산은 松洞面 원통리하고 합덕리사이에 있어, 내가 근방에가 살았어요. 높이는 얼마 높들 않아요, 한 300m. 그 러니 깨 못 되었제.

<韓炳燁 (男 41 南原郡 공무원)씨가 구술>